

제 27장 글쓰기지도 무엇을 어떻게 할까?

1. 글쓰기 지도, 무엇을 어떻게 할까?

1) 글쓰기가 안 되는 이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면 글쓰기를 끔찍하게 싫어한다. 국어와 관계된 부분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 역시 글쓰기 영역이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일까?

첫째, 교사와 학생이 글쓰기의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글쓰기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 결과 글쓰기 학습 목표를 학생의 수준보다 높게 잡거나 너무 폭 넓게 잡아 부담을 갖게 한다. 따라서 교사중심의 피동적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중심의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학생들이 ‘글짓기/글쓰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글짓기’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글쓰기’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때 자연과 사회에서 부딪치며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함께 생생하고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글짓기’는 ‘자신이 느낀 것이 없었을지라도 아름답고 유창한 기교로 꾸며 쓰기를 하여 미적인 표현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 활동’이다. 이것은 ‘솔직히 쓰기/ 꾸며 쓰기’ 혹은 ‘현실적이고 평범한 일상생활 주변 글감 중심 쓰기 / 낭만적이고 특별한 글감중심 쓰기’로 정리될 수 있다.

셋째, 강제로 쓰는 글짓기가 많아서 지겨워한다. 관 주최 글짓기대회, 반성문 쓰기, 검사용 일기 쓰기, 국어 실기 수행평가용 글짓기 등 자신의 경험부족이나 쓸만한 글감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자주 써 볼 기회가 없어서 글쓰기 작업이 익숙하지 않다.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이유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한다. 자주 써보면 사고 표현구조에 익숙해지고 고쳐쓰기의 과정도 익히게 된다.

다섯째, 영상표현시대의 학생들은 시각적 이미지에 길들여져 있으므로 감성적인 사고력의 언어 이미지 표현에 매우 어설프다.

여섯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즐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생활의 단조로움으로 체험할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삶 속에서 깨달음, 기쁨, 감동, 슬픔 등의 정서적 감성의 자극기회가 부족하다.

일곱째, 교사의 체계적이고 적절한 쓰기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논술문 쓰기는 입시의 중요성 때문에 지도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알려졌지만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산문(수필, 감상문, 전기문)을 쓰는 지도 방법은 연구 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쓰기 전 활동’, ‘쓰기 중 활동’, ‘쓰기 후 활동’의 교육적 연결과 방법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여덟째, 단원과 영역을 통합한 글쓰기 교육전략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못했다. 글쓰기 활동학습은 학생이 교과과정에서 ‘듣기, 읽기, 말하기’와 더불어 통합된 교과임을 인식하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사고의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는 일상적인 언어활동으로써 통합된 국어수업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홉째, 쓰기 전략이 있는 교사의 경우에도 개인적, 일시적인 실천사례에 머물로 일반화한 지도모형으로 정리하지 못해왔다. 꾸준한 연구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모형 개발을 통

해 발전된 글쓰기 교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2) 글쓰기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

언어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이 글쓰기를 하게 되면서 문명은 더욱 발전해 왔다. 문자를 통해 그들의 삶이 기록되고 쌓여 가며 한 세대가 지닌 삶의 흔적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역사적 문명 전달의 행위로 글쓰기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문화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글쓰기는 자기 수련의 과정이다

쓰기는 마음 안에 들어 있는 사실, 생각, 느낌들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말하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말하기는 다분히 ‘상황’에 의존하는데 비해 쓰기는 훨씬 절저히 ‘자기’에 의존한다. 따라서 말하기는 여러 보조 수단의 도움을 받을 뿐아니라 틈틈이 고치고 되풀이하기 위하여 짧게 도막지을 수 있으나 쓰기는 쓰기의 특징상 아무런 보조 수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며 대체로 완결된 하나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소화하고 정리하여 담아내야 한다. 말하기에 비해 쓰기는 일회적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생각을 모으고 გადა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

(2) 글쓰기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글쓰기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람, 세상,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한 인간의 내부에 가장 알차게 갈무리된 소중한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며 과정이다. 글읽기, 듣기가 ‘음식먹기’의 과정이라면 글쓰기, 말하기는 ‘소화의 과정을 거쳐 영양분으로써 에너지화’된 과정이다. 이 때에 글쓰기의 기본인 읽기 교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언어능력의 발달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바른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말하기의 경우 학생들은 사적인 말하기는 매우 잘 하지만 공적인 말하기는 어려워한다. 체계적인 자료준비와 읽기를 거쳐 말할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글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글쓰기는 창의적, 논리적 사고가 총괄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사고 작용으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활동이다.

(3) 글쓰기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글쓰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은 제대로 된 논술의 바탕을 이룬다.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이 에세이(중수필=논술형식의 산문)쓰기 실습을 하는데 이는 생활문쓰기 등 글쓰기의 훈련을 거쳐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의 향상과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기본 의도에서이다. 논술문 쓰기의 입시방침 역시 체계적인 훈련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글쓰기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3)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글쓰기는 언어 활동의 최종 목표이며 자신의 생각과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표현과정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사이에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전달 수단이자 역사의 기록전달로

씨의 행위이다. 글쓰기의 지도 목표와 방법에 관해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글쓰기 교육관으로서의 주장 : 글쓰기란 풍부한 수사법을 구사하는 능력을 기르는 반복활동이다

둘째, 인지주의적 교육관의 주장 :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원리’를 가르쳐 자신의 삶에 얹힌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관의 주장 : 글쓰기는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주장 관하여 우리는 세 번째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표현기능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교육’도 추구하여야 한다. 즉 바람직한 글쓰기의 지도목표는

(1) 글감

학생이 살아가며 부딪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사물들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2) 글쓰기의 능력 향상

솔직하고 정확하게 풍부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게 하여

(3) 과정과 방법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인식하여 사랑할 줄 알며 이웃과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으로 자라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4) 글쓰기 교육의 원리

(1) 쓰기의 중요성과 목표를 분명히 아는 글쓰기

학생과 교사가 글을 써야 하는 중요성과 목표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한 후에 글쓰기를 해야 한다. 왜 이 글을 써야하나? 쓸 때는 어떤 점을 강조하며 쓸 것인가? 내 글을 평가할 때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기교보다는 생활중심으로 솔직하게 쓰기

글짓기가 아닌 글쓰기를 교육해야 한다. 잊혀지지 않는 일, 안타까운 일, 부끄러웠던 일, 무서웠던 일, 화가 나고 억울했던 일, 가장 아름답게 느꼈던 사람의 모습과 이유 등, 다양한 글감을 제시하고 읽어주어 글쓰기에 부담을 줄이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글쓰기

건전한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글쓰기를 지도해야 한다.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글쓰기의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원리나 방법을 배우면서도 은연중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정신을 갖게 해야 한다. 이웃과 공동체를 바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정신이 길러지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학생중심의 글쓰기

① 교사는 다양한 글감을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쓰게 한다.

글쓰기의 목적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소리로, 가장 알맞은 글감과 갈래와 방법을 선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감의 선택이나 쓰기의 방법이 학생 중심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과 능력을 키워주는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

글쓰기의 과정은 크게 <사고하기 → 표현하기 → 고쳐서 사고하고 다시 표현하기>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5) 평가 척도가 분명한 글쓰기

좋은 글에 대한 교사의 평가 척도가 분명하다면 학생들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한 요소를 교정 진단하는 과정을 익히며 피드백의 효과를 얻게된다. 예를 들어 교사가 ‘가장 슬펐던 일’에 관한 주제의 글쓰기를 지도할 경우 <① 최소한 한 두 가지 이상의 체험을 소개하고, ② 그 체험을 하게된 원인, 과정, 결과를 적게 한 후, ③ 그때의 구체적인 느낌과 이유, ④ 그 체험에서 내가 깨닫게 된 의미 등을 적게한다> 이와같은 개요작성과 글쓰기의 방향설정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편하고 부담없이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6)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있는 글쓰기

교사가 위와 같은 사전계획을 세워 글쓰기를 지도하여도 학생들은 실제 갈래별 글쓰기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따라서 교사는 갈래별 글쓰기의 성격에 맞는 수업 교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부담 없이 자신의 스키마를 연결하고 묶어 낼 수 있도록 진행시켜야 한다. 주먹구구식의 글쓰기 방법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오히려 글쓰기를 멀리하게 하는 역효과를 준다.

(7) 통합적 글쓰기

통합교육의 개념은 ‘총체언어 = 총체적 언어 교육 = 학습자 중심의 언어교육’이라고 불리우며 ‘개방교육’ ‘열린교육’이라는 이름과 병행하여 쓰이고 있다. 이들의 근본정신은 학습자인 학생의 처지와 욕구를 교육적인 형식과 내용 속에 적절히 담아내는 데 있다는 점이다.

즉 통합적 글쓰기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과 연간 교육과정의 통합 + 학습자 중심의 의미 있는 언어활동(드라마, 미술, 음악, 신체활동 등의 통합) +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현실문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올바른 삶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총체적 지식을 생동감있게 체험하여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통합적 사고력의 향상과 함께 창의력, 종합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8) 위계적 글쓰기

학생들이 글쓰기를 쉽고 즐겁게 하려면 익숙한 갈래부터 시작하게 해야 한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글쓰기의 단계에 맞추어 위계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5) 글쓰기 교육의 과정

계획하기 → 내용생성하기 → 내용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 쓰기

6) 좋은 글이란.

- 자기 중심적인 글로서 진실하게 쓰여진 글
- 주제의 선명성이 있고 기승전결 구도가 있는 글
- 거짓과 꾸밈이 없는 글
- 자기의 체험적 사실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
-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나 미사여구에 치우치지 않는 글
- 향기와 색깔이 있으며 은은한 서정성이 살아 있는 글
- 쉬운 말을 쓰면서도 깊이가 있는 글
- 자만함이나 거만함이 없는 글
- 천박하지 않은 유머나 해학이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글
- 읽기 쉽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글
- 작가의 품위가 드러나는 문장의 글
- 쉽게 이해되며 공감이 가며 감동을 주는 글

7) 어린이 글과 아동 문학

어린이들의 삶과 말과 마음을 가꾸는 일은 글쓰기의 교육적 목표이며 동시에 가치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문학이 갖춰야 할 공통된 사명이다. 그러나 어른은 어린이들에게 주기 위한 글, 즉 어린이를 위해 그들의 생각이 담긴 글을 쓰지만, 어린이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자신의 삶을 위한 글을 쓴다. 따라서 어른의 글과 어린이의 글이 다르며 또 달라야만 한다.

어린이의 글과 어른이 쓴 문학작품의 차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어린이가 쓴 글	어른이 쓴 문학작품
어떻게 쓰나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사실 그대로 쓴다. (글쓰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상상으로 지어 만든다. (글짓기)
말	자기의 말과 생각으로 쓴다	아이들이 잘 이해되는 말로 쓴다
교육	어른이 지도해서 쓴다	어른 스스로 쓴다

위의 표에서처럼 어린이의 글쓰기와 어른의 문학작품은 엄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 글쓰기 지도에서 가장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어린이의 글은 정직하고 가치 있는 글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글쓰기의 첫걸음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쓰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글이 되려면 정직하게 쓰도록 지도해야만 하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둘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가꾸고 지켜주기 위함이다.

셋째,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로 보고 삶을 다져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는 데서 글쓰는 기쁨을 얻는다. 위안을 얻기도 하고 건강한 마음을 찾아간다. 억지로 지어서 쓰는 글은 고통을 동반하며, 글쓰기에 관해 부담이 되어 열등감을 갖게 한다. 어른의 흉내내는 글쓰기, 형식에 치우친 글쓰기, 거짓스런 글에 강요당하고 익숙해져 버린 어린이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글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직한 글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정리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남에게 감동을 주는 글, 가치 있는 글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글쓰기는 사회 속의 행위이며 자신의 체험을 남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직한 체험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잘 읽힐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감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글의 글감 선택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부분으로의 보편성과 공유할만한 소재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가치 있는 글을 쓰게 하는 일은 곧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일이다. 글쓰기 교육이 글 만들거나 글 지어내기가 될 수 없고, 어린이들의 삶을 키워 나가는 교육적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